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조* · 최진배** · 김태훈***

요약: 여성기업에는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경력단절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장애요인이 자본의 축적, 경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여성기업은 주로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기업규모도 소규모로 되기 쉽다.

주요어: 여성기업의 장애요인, 경력단절,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기업규모, 업종의 편중

1. 서론

최근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은 남성기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이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여성기업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태조사에 의존하거나 하나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원천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신용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려 한다.

안승철 등(2005)이 주장하듯이 여성기업가(female entrepreneur)는 여성사업가(business woman)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를 구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의 소프트웨어의 진전 등으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여성사업가와 여성기업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인,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영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여성기업인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여성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냐 하는 것은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과 같이 여성기업을 여성이 대표자로서 실제 경영

*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여성기업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명목상으로는 여성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경영자는 남성인 기업도 여성기업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업을 제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글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주)가 제공한 것으로 기준시점은 2008년 5월이다.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이 글은 광주·전남지역 남성기업을 대조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기업과 남성기업간 비교를 위해서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의 χ^2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은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기존논의를 검토한다. 3절은 여성기업의 주요 특징인 업종분포의 편중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을 개관한다. 4절은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이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에 미친 영향을 업종과 규모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2. 기존논의 검토

최근 여성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이 국민경제에서 접하는 의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성기업의 창업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창업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¹⁾ 여성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산업별 분포의 편중성, 규모의 영세성, 협소한 사업네트워크, 여성기업의 낮은 경영성과, 낮은 생존율, 위험에 대한 선호 등은 이제 일반화된 연구 주제로 되어 있다.²⁾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으로는 창업이전의 고용경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고정관념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장애요인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여성기업의 주요 특징들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장 내에서의 차별, 승진과 경력개발의 어려움과 같은 창업이전의 고용경험은 잠재적 여성기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수준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³⁾, 이는 다시 기업의 성장 그리고 특히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잠재적 여성기업가에게 고용경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고정관념도 여성기업이 당면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다. 여성기업이 제조업에 진출할 경우 고객은 다른 기업이나 정부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고객기반을 구축하기 힘들다(Heilman & Chen, 2003; Bates, 2002). 여성기업보다 남성기업이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남성고객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기업은 소규모이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곤란을 겪는다.⁴⁾ 이렇게 하여 차별은 여성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 고정관념은 여성기업의 외부금융에의 접근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고정관념은 여성기업의 성과는 실제보다 낮게 그렇지만 위험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나 대출담당자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도 대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⁵⁾

이렇게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는 이 글의 목적에 맞추어 장애요인이 여성기업의 규모와 업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논의들은 여성기업의 영세성을 초기자본의 규모와 관련시키는데(Marlow & Patton, 2005; Coleman, 2000; Carter & Peter, 1998; 나중덕 등,

2004), 적은 초기자본은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과 관련이 있다. 여성은 창업이전의 직장 내에서 지위가 낮고 경력을 쌓을 기회도 많지 않아 초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Coleman, 2000; Rietz & Henrekson, 2000).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rter et al.(1997), Anna et al.(2000), Buttner & Moore(1997) 등에 의하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과는 달리 성장을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Cliff(1998)는 여성기업인은 조직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일과 개인생활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다. 여성기업인은 소비자로서 일상제품에 대한 미비점과 소비자의 욕구파악이 빠르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러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김영옥, 1998; 정희선, 2002a; 전방지, 2001과 2002; 안승철 등, 2005; Anna et al., 2000). 그러나 이 또한 많은 부분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이 부문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이 경력과 사회적 이동을 위해 진입할 수 있는 부문이며,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물적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기업이 진출하게 된다(Heilman & Chen, 2003; Coleman, 2000; Rietz & Henrekson, 2000; Boden & Nucci, 2000; Marlow & Patton, 2005).⁶⁾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은 여성특수한 기업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기업인의 여러 장애요인 중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경력 등이 여성기업의 특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성기업의 특징으로는 규모의 영세성과 진출업종의 편협성에 한정하고자 한다. 여성기업의 특

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요인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설명변수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3.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 현황과 자료의 설명

1) 업종별 분포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사업체 수는 총 220,230개인데, 이는 2000년말 현재의 220,489개에 비해 2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남녀기업별로 보면 같은 기간 남성기업은 141,911개에서 133,923개로 5.6% 감소하였지만 여성기업은 78,578개에서 86,307개로 9.8%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여성기업은 건설업(2.54배, 2000년 대비 2006년 현재 기업체수 증가율), 운수업(2.03배), 통신업(1.96배), 사업서비스업(1.83배), 교육서비스업(1.56배)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모두 이른 바 남성업종이다. 이에 반해 남성기업은 같은 기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산업이 없다.

광주전남지역의 여성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광주·전남지역 사업체의 34.5%), 도매 및 소매업(30.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2.1%), 교육서비스업(7.2%)에 비교적 많이 진출해 있으며, 남성기업은 도매 및 서비스업(27.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4.0%), 운수업(13.3%), 제조업(10.3%)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기업도 광주·전남지역의 여성기업과 매우 유사한 산업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여성기업의 점유율을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여성기업의 점유율이 69.7%로 제일 높으며, 교육서비스업(57.7%), 도매 및 소매업(41.9%)이 그 뒤를 잇

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산업 내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유사하다.

남성기업수는 감소하고 여성기업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지역기업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0년의 35.6%에서 2006년에는 39.2%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여성기업은 광주·전남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성업종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받은 광주·전남지역 기업 자료는 총 28,862개이다. 이 중 남성기업이 22,501개로 전체의 7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은 6,361개로 22.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의 광주·전남지역 사업체는 모두 220,230개이므로 표

본기업은 전체의 13.1%를 점한다. 표본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지역기업 전체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한다.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통계청의 사업체의 그것과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점유율이 각각 18.6%와 19.2%로 같은 산업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업체가 점하는 비중(각각 8.2%, 3.1%)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비중도 39.6% 대 28.7%로 표본의 점유율이 높다. 이에 반해 표본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표본기업에서의 점유율 6.1%, 통계청 사업체에서의 점유율 19.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8% 대 13.2%), 교육서비스업(1.7% 대 4.9%), 오

표 1. 산업별 남녀사업체 구성비 현황(2006년 현재, %)

	전국			광주전남지역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0.1	0.1	0.0	0.1	0.2	0.0
광업	0.1	0.1	0.0	0.4	0.7	0.1
제조업	10.6	13.7	5.0	8.2	10.3	5.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1	0.0	0.1	0.2	0.0
건설업	2.8	4.0	0.8	3.1	4.6	0.8
도매 및 소매업	26.8	25.7	28.8	28.7	27.4	30.6
숙박 및 음식점업	19.2	9.9	35.5	19.4	9.6	34.5
운수업	10.6	16.0	1.2	8.5	13.3	1.1
통신업	0.3	0.4	0.1	0.4	0.6	0.2
금융 및 보험업	1.1	1.6	0.3	1.3	1.9	0.3
부동산 및 임대업	3.7	4.2	2.9	2.2	2.8	1.2
사업서비스업	2.8	3.9	0.9	2.2	3.1	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4	0.6	0.0	0.7	1.1	0.0
교육 서비스업	4.1	2.6	6.8	4.9	3.4	7.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	2.6	2.2	2.5	2.7	2.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8	3.9	3.7	4.1	4.2	3.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1	10.7	11.7	13.2	14.0	12.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7.

표 2. 산업내 남녀사업체 구성비 현황(2006년 현재, %)

구분	산업내(광주전남)			산업내(전국)		
	전국	남자	여자	전국	남자	여자
농업 및 임업/어업	100.0	96.6	3.4	100.0	95.8	4.2
광업	100.0	95.1	4.9	100.0	93.4	6.6
제조업	100.0	75.9	24.1	100.0	83.0	17.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0.0	99.1	0.9	100.0	98.6	1.4
건설업	100.0	90.5	9.5	100.0	90.2	9.8
도매 및 소매업	100.0	58.1	41.9	100.0	61.0	39.0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30.3	69.7	100.0	32.9	67.1
운수업	100.0	94.8	5.2	100.0	95.9	4.1
통신업	100.0	84.7	15.3	100.0	82.9	17.1
금융 및 보험업	100.0	90.7	9.3	100.0	90.4	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0	77.5	22.5	100.0	72.1	27.9
사업서비스업	100.0	86.5	13.5	100.0	87.9	1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0.0	97.6	2.4	100.0	97.3	2.7
교육서비스업	100.0	42.3	57.7	100.0	40.0	6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	66.2	33.8	100.0	67.8	32.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0.0	62.6	37.4	100.0	64.7	35.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0	64.2	35.8	100.0	61.6	38.4
계	100.0	60.8	39.2	100.0	63.7	36.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7.

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2.0% 대 4.1%)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중은 모집단의 그것에 비해 매우 낮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기업의 서비스업의 비중이 모집단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여성기업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남성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수정된 잔차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성기업은 제조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열세를 보이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표본에서 여성기업이 접하는 비중은 22.0%로 모집단의 그것(39.2%)보다 낮다.

그리고 표본의 서비스업에서 여성기업이 접하는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집단의 그것보다 매우 낮다. 표본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그들이 금융기관 신용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 표본기업은 모두 금융기관 신용을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 보듯이 여성기업은 규모가 매우 영세한 생계형 기업으로 금융기관 신용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할 수는 없다.

여성기업은 주로 여성형 산업에 진출해 있다. 표본기업이 속한 업종을 여성형 산업과 남성형 산업으로

표 3. 업종별 남녀사업체 분할표

업종	남녀기업	남성	여성	전체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빈도	940.0	442.0	1382.0
	기대빈도	1077.4	304.6	1382.0
	성의 %	4.2	6.9	4.8
	수정된 잔차	-9.1	9.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빈도	408.0	163.0	571.0
	기대빈도	445.2	125.8	571.0
	성의 %	1.8	2.6	2.0
	수정된 잔차	-3.8	3.8	
건설업	빈도	4897.0	654.0	5551.0
	기대빈도	4327.6	1223.4	5551.0
	성의 %	21.8	10.3	19.2
	수정된 잔차	20.5	-20.5	
교육서비스업	빈도	243.0	246.0	489.0
	기대빈도	381.2	107.8	489.0
	성의 %	1.1	3.9	1.7
	수정된 잔차	-15.2	15.2	
도매 및 소매업	빈도	8687.0	2754.0	11441.0
	기대빈도	8919.5	2521.5	11441.0
	성의 %	38.6	43.3	39.6
	수정된 잔차	-6.7	6.7	
부동산 및 임대업	빈도	256.0	93.0	349.0
	기대빈도	272.1	76.9	349.0
	성의 %	1.1	1.5	1.2
	수정된 잔차	-2.1	2.1	
사업서비스업	빈도	798.0	106.0	904.0
	기대빈도	704.8	199.2	904.0
	성의 %	3.5	1.7	3.1
	수정된 잔차	7.6	-7.6	
숙박 및 음식점업	빈도	685.0	1077.0	1762.0
	기대빈도	1373.7	388.3	1762.0
	성의 %	3.0	16.9	6.1
	수정된 잔차	-40.8	40.8	
운수업	빈도	925.0	119.0	1044.0
	기대빈도	813.9	230.1	1044.0
	성의 %	4.1	1.9	3.6
	수정된 잔차	8.4	-8.4	
제조업	빈도	4662.0	707.0	5369.0
	기대빈도	4185.7	1183.3	5369.0
	성의 %	20.7	11.1	18.6
	수정된 잔차	17.4	-17.4	
전체	빈도	22501.0	6361.0	28862.0

주: 1) χ^2 값은 2629.948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업종 비율간 차이가 있다.

2) 유효퍼센트 1%미만 업종은 제외하였다.

구분하여 살펴보면⁸⁾, 여성형 산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율은 29.9%로 전체 표본에서 점하는 비중(22.0%)보다 높다. 이를 다시 남녀기업별로 보면 여성기업은 여성형 산업에 73.6%가 분포되어 있고, 남성기업은 48.7%가 분포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남성형 산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12.7%에 불과하며, 남녀기업별로 보면 여성기업은 남성형 산업에 26.4%, 남성기업은 51.3%가 분포되어 있다.⁹⁾

2) 규모의 영세성

광주·전남지역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06년말 현재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85.5%를 점하고 있으며, 종업원 5-9인 사업체는 8.2%를 점하여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표본기업의 경우 종업원 4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72.0%, 종업원 5-9인 기업이 13.9%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의 85.9%를 점하고 있다. 표본기업은 모집단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금융기관신용의 필요성이나 접근가능성 등의 이유로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체의 많은 부분이 표본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은 주요국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표본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기업 유효표본 6,190개에서 종업원 4인 이

하 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85.3%로 남성기업의 그것(68.3%)보다 17.0% 포인트나 높다. 그러나 다른 규모 구간에서 여성기업의 점유율은 남성기업의 점유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이 종업원 4인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본기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모집단보다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부 산업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모집단보다 큰 편이다. 표본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일부 기업에서 금융기관 신용의 이용가능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신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표본의 편중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본의 크기와 함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표본은 모집단과 크게 괴리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규모별 현황

	광주전남총사업체(개)	광주전남사업체구성비(%)	표본기업(개)	표본기업구성비(%)
계	220,230	100.0	28,364	100.0
0 - 4명	188,209	85.5	20,426	72.0
5 - 9명	18,049	8.2	3,942	13.9
10 - 19명	7,600	3.5	2,220	7.8
20 - 49명	4,326	2.0	1,176	4.1
50 - 99명	1,392	0.6	366	1.3
100명 이상	537	0.3	234	0.8

자료: 광주·전남지역 총사업체현황은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7.

표 5. 종업원구간별 남녀사업체 분할표

종업원구간		남녀기업	남성	여성	전체
0~4인	빈도		15144.0	5282.0	20426.0
	기대빈도		15968.3	4457.7	20426.0
	종업원구간의 %		74.1	25.9	100.0
	성의 %		68.3	85.3	72.0
	전체 %		53.4	18.6	72.0
	수정된 잔차		-26.4	26.4	
5~9인	빈도		3392.0	550.0	3942.0
	기대빈도		3081.7	860.3	3942.0
	종업원구간의 %		86.0	14.0	100.0
	성의 %		15.3	8.9	13.9
	전체 %		12.0	1.9	13.9
	수정된 잔차		12.9	-12.9	
10~19인	빈도		2012.0	208.0	2220.0
	기대빈도		1735.5	484.5	2220.0
	종업원구간의 %		90.6	9.4	100.0
	성의 %		9.1	3.4	7.8
	전체 %		7.1	0.7	7.8
	수정된 잔차		14.8	-14.8	
20~49인	빈도		1064.0	112.0	1176.0
	기대빈도		919.4	256.6	1176.0
	종업원구간의 %		90.5	9.5	100.0
	성의 %		4.8	1.8	4.1
	전체 %		3.8	0.4	4.1
	수정된 잔차		10.4	-10.4	
50~99인	빈도		335.0	31.0	366.0
	기대빈도		286.1	79.9	366.0
	종업원구간의 %		91.5	8.5	100.0
	성의 %		1.5	0.5	1.3
	전체 %		1.2	0.1	1.3
	수정된 잔차		6.2	-6.2	
100인 이상	빈도		227.0	7.0	234.0
	기대빈도		182.9	51.1	234.0
	종업원구간의 %		97.0	3.0	100.0
	성의 %		1.0	0.1	0.8
	전체 %		0.8	0.0	0.8
	수정된 잔차		7.0	-7.0	
전체	빈도		22174.0	6190.0	28364.0
	기대빈도		22174.0	6190.0	28364.0
	종업원구간의 %		78.2	21.8	100.0
	성의 %		100.0	100.0	100.0
	전체 %		78.2	21.8	100.0

주) χ^2 값은 731.148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종업원구간의 비율간 차이가 있다.

4. 여성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글에서는 여성기업인의 나이에도 주목한다. 그것은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성기업의 특징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나이가 젊다면 스스로 축적해놓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소규모로 시작하게 된다. 소규모 창업자본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출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할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사업네트워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업종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¹⁰⁾

남녀기업인의 나이 구성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해보면 여성기업인은 20-29세와 30-39세에서 남성기업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40세 미만인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29.8%로 남성기업의 그것(22.0%)보다 7.8% 포인트 높다. 기업인의 나이가 40-49세인 경우에는 여성기업이 43.6%로 남성기업의 45.2%와 비슷해지는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줄어든다. 이렇게 하여 남성기업인의 연령별 비율과 여성기업인의 연령별 비율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¹¹⁾ 여성기업인의 나이가 30-39세(27.7%)와 40-49세(43.6%)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기업인의 창업당시의 연령이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라는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실태조사결과와도 부합된다.¹²⁾ 여성의 경우 30-39세 사이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29세 사이 또는 40-49세 사이에 비해 낮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특히 직장과 자녀양육 또는 가사와

양립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여성기업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라는 Buttner & Moore(1997), Carter et al.(1997), Cliff(1998), Anna et al.(2000) 등의 주장이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에게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기업인의 나이가 40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분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다. 표본기업에서 나이와 경력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주의 나이와 동업계 종사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귀무가설을 성별로 동업계 종사년별 나이 비율의 차이가 없도록 설정하여 차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가설은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모두에서 기각되었다. 당연하게도 남녀기업 모두에서 동업계 종사년이 짧을수록 기업인의 연령이 낮으며, 동업계 종사년이 길어질수록 기업인의 연령도 높아진다.

이어서 성별로 동업계 종사년별 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해보았는데, 차이분석 결과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동업계 종사년 5년 미만의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77.9%로 남성기업의 46.6%에 비해 매우 높다. 그리고 경력 5년 미만 구간에서 남성기업인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나이구간에서 점하는 비중도 29세 이하 95.5%, 30-39세 71.4%, 40-49세 46.2%, 50-59세 33.4%, 60세 이상 28.9%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기업인의 경력은 길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를 반영하여 경력이 증가할수록 우위를 보이는 나이구간이 높아지는데, 5년 이하에서는 29세 이하, 5-10년 이하에서는 40-49세, 10-15년 이하에서는 40-49세 등으로 나이구간이 높아지고 있다. 종사년 구간에서 우위를 보이는 나이구간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기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즉 경력 5년 미만 구간에서 여성기업인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나이구간에서 점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91.4%(29세 미만), 86.0%(30-39세), 77.2%(40-49

표 6. 성(레이어)별 종사년구간별 나이구간표

남녀기업	나이구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체
	종사년구간							
남성	5년미만	빈도	85.0	1551.0	2134.0	932.0	325.0	5027.0
		기대빈도	41.4	1010.6	2152.0	1300.2	522.8	5027.0
		종사년구간의 %	1.7	30.9	42.5	18.5	6.5	100.0
		나이구간의 %	95.5	71.4	46.2	33.4	28.9	46.6
		전체 %	0.8	14.4	19.8	8.6	3.0	46.6
		수정된 잔차	9.3	26.0	-0.7	-16.2	-12.5	
	5~10년미만	빈도	4.0	377.0	882.0	491.0	152.0	1906.0
		기대빈도	15.7	383.2	815.9	493.0	198.2	1906.0
		종사년구간의 %	0.2	19.8	46.3	25.8	8.0	100.0
		나이구간의 %	4.5	17.4	19.1	17.6	13.5	17.6
		전체 %	0.0	3.5	8.2	4.5	1.4	17.6
		수정된 잔차	-3.3	-0.4	3.4	-0.1	-3.8	
	10~15년미만	빈도	0.0	206.0	772.0	437.0	138.0	1553.0
		기대빈도	12.8	312.2	664.8	401.7	161.5	1553.0
		종사년구간의 %	0.0	13.3	49.7	28.1	8.9	100.0
		나이구간의 %	0.0	9.5	16.7	15.6	12.3	14.4
		전체 %	0.0	1.9	7.1	4.0	1.3	14.4
		수정된 잔차	-3.9	-7.3	5.9	2.2	-2.1	
	15~20년미만	빈도	0.0	37.0	531.0	361.0	118.0	1047.0
		기대빈도	8.6	210.5	448.2	270.8	108.9	1047.0
		종사년구간의 %	0.0	3.5	50.7	34.5	11.3	100.0
		나이구간의 %	0.0	1.7	11.5	12.9	10.5	9.7
		전체 %	0.0	0.3	4.9	3.3	1.1	9.7
		수정된 잔차	-3.1	-14.1	5.4	6.7	1.0	
	20~25년미만	빈도	0.0	0.0	233.0	295.0	118.0	646.0
		기대빈도	5.3	129.9	276.5	167.1	67.2	646.0
		종사년구간의 %	0.0	0.0	36.1	45.7	18.3	100.0
		나이구간의 %	0.0	0.0	5.0	10.6	10.5	6.0
		전체 %	0.0	0.0	2.2	2.7	1.1	6.0
		수정된 잔차	-2.4	-13.1	-3.6	11.9	6.8	
25~30년미만	빈도	0.0	0.0	65.0	194.0	106.0	365.0	
	기대빈도	3.0	73.4	156.3	94.4	38.0	365.0	
	종사년구간의 %	0.0	0.0	17.8	53.2	29.0	100.0	
	나이구간의 %	0.0	0.0	1.4	6.9	9.4	3.4	
	전체 %	0.0	0.0	0.6	1.8	1.0	3.4	
	수정된 잔차	-1.8	-9.7	-9.8	12.1	11.9		

표 6. 계속

남녀기업	종사년구간		나이구간					전체
	종사년구간	나이구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남성	30년이상	빈도	0.0	0.0	6.0	83.0	166.0	255.0
		기대빈도	2.1	51.3	109.2	66.0	26.5	255.0
		종사년구간의 %	0.0	0.0	2.4	32.5	65.1	100.0
		나이구간의 %	0.0	0.0	0.1	3.0	14.8	2.4
		전체 %	0.0	0.0	0.1	0.8	1.5	2.4
		수정된 잔차	-1.5	-8.1	-13.2	2.5	29.0	
	전체	빈도	89.0	2171.0	4623.0	2793.0	1123.0	10799.0
		기대빈도	89.0	2171.0	4623.0	2793.0	1123.0	10799.0
		종사년구간의 %	0.8	20.1	42.8	25.9	10.4	100.0
		나이구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0.8	20.1	42.8	25.9	10.4	100.0	
여성	5년미만	빈도	64.0	799.0	1064.0	423.0	125.0	2475.0
		기대빈도	54.5	723.5	1073.2	479.0	144.9	2475.0
		종사년구간의 %	2.6	32.3	43.0	17.1	5.1	100.0
		나이구간의 %	91.4	86.0	77.2	68.8	67.2	77.9
		전체 %	2.0	25.1	33.5	13.3	3.9	77.9
		수정된 잔차	2.8	7.1	-0.8	-6.1	-3.6	
	5~10년미만	빈도	6.0	93.0	210.0	106.0	31.0	446.0
		기대빈도	9.8	130.4	193.4	86.3	26.1	446.0
		종사년구간의 %	1.3	20.9	47.1	23.8	7.0	100.0
		나이구간의 %	8.6	10.0	15.2	17.2	16.7	14.0
		전체 %	0.2	2.9	6.6	3.3	1.0	14.0
		수정된 잔차	-1.3	-4.2	1.7	2.5	1.1	
	10~15년미만	빈도	0.0	27.0	68.0	51.0	11.0	157.0
		기대빈도	3.5	45.9	68.1	30.4	9.2	157.0
		종사년구간의 %	0.0	17.2	43.3	32.5	7.0	100.0
		나이구간의 %	0.0	2.9	4.9	8.3	5.9	4.9
		전체 %	0.0	0.8	2.1	1.6	0.3	4.9
		수정된 잔차	-1.9	-3.4	0.0	4.3	0.6	
	15~20년미만	빈도	0.0	8.0	26.0	23.0	11.0	68.0
		기대빈도	1.5	19.9	29.5	13.2	4.0	68.0
종사년구간의 %		0.0	11.8	38.2	33.8	16.2	100.0	
나이구간의 %		0.0	0.9	1.9	3.7	5.9	2.1	
전체 %		0.0	0.3	0.8	0.7	0.3	2.1	
수정된 잔차		-1.3	-3.2	-0.9	3.1	3.7		
	빈도	0.0	1.0	9.0	7.0	5.0	22.0	
	기대빈도	0.5	6.4	9.5	4.3	1.3	22.0	

표 6. 계속

남녀기업	종사년구간		나이구간					전체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여성	20~25년미만	종사년구간의 %	0.0	4.5	40.9	31.8	22.7	100.0
		나이구간의 %	0.0	0.1	0.7	1.1	2.7	0.7
		전체 %	0.0	0.0	0.3	0.2	0.2	0.7
		수정된 잔차	-0.7	-2.6	-0.2	1.5	3.4	
	25~30년미만	빈도	0.0	0.0	1.0	4.0	2.0	7.0
		기대빈도	0.2	2.0	3.0	1.4	0.4	7.0
		종사년구간의 %	0.0	0.0	14.3	57.1	28.6	100.0
		나이구간의 %	0.0	0.0	0.1	0.7	1.1	0.2
		전체 %	0.0	0.0	0.0	0.1	0.1	0.2
		수정된 잔차	-0.4	-1.7	-1.6	2.5	2.6	
	30년이상	빈도	0.0	1.0	0.0	1.0	1.0	3.0
		기대빈도	0.1	0.9	1.3	0.6	0.2	3.0
		종사년구간의 %	0.0	33.3	0.0	33.3	33.3	100.0
		나이구간의 %	0.0	0.1	0.0	0.2	0.5	0.1
		전체 %	0.0	0.0	0.0	0.0	0.0	0.1
		수정된 잔차	-0.3	0.2	-1.5	0.6	2.0	
	전체	빈도	70.0	929.0	1378.0	615.0	186.0	3178.0
		기대빈도	70.0	929.0	1378.0	615.0	186.0	3178.0
		종사년구간의 %	2.2	29.2	43.4	19.4	5.9	100.0
		나이구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2	29.2	43.4	19.4	5.9	100.0	

주: 1) 남성 및 여성기업의 경우 기대빈도가 5미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5셀이다. 주변의 셀(cell)과 통합하여 기대도수가 5이상인 되도록 예이지의 연속성 수정을 하고 검정을 하여야하나(성삼경 외 2인, 1993), 전체적으로 해석상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 없이 기존의 χ^2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남성기업 레이어의 χ^2 값은 2333.517이며, p-value는 0.0001로써, 종사년구간별 나이구간의 비율간 차이가 있다.

3) 여성기업 레이어의 χ^2 값은 130.277이며, p-value는 0.0001로써, 종사년구간별 나이구간의 비율간 차이가 있다.

세), 68.8%(50-59세), 67.2%(60세 이상)으로 줄어드는 폭은 매우 완만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여성기업인의 경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경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창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조사결과와도 부합된다. 이들의 2007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창업 이전의 경력으로는 가정주부가 44.2%로 제일 많으며, 창업 업종과 창업이전 경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없거나 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이

64.8%(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28)인데,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이전의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여성기업인도 남성기업인과 마찬가지로 경력증가와 함께 우위를 보이는 나이구간과 종사년 구간에서 우위를 보이는 나이구간이 상승한다.

이렇게 3/4 이상의 여성기업인은 경력이 매우 짧은 상태에서 창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구간별로 보아도 경력 5년 미만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여성기업인이 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둘째,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경감된 이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창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경력단절,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이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정은 첫 번째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창업할 경우에는 동일한 요인이 창업을 유도한다고 해도 생계해결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동업계 종사년과 업종의 관계를 검증해보기로 한다.

먼저 동업계 종사년과 업종의 관계를 검증해보기 위해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성별 동업계 종사년 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동업계 종사년 5년 미만에서 여성기업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운수업과 제조업에서는 동업계 종사년 5~10년 미만에서도 여성기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운수업과 제조업은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 일정정도의 경력이 요청될 뿐 아니라 사업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판

표 7. 남성여성기업의 종사년구간별 업종의 퍼센트 차이표

남성 [업종의 %]

업종 종사년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 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숙박및음 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5년미만	69.4	89.0	27.8	78.2	53.3	65.4	50.5	84.2	36.2	38.5
5~10년미만	14.4	6.8	21.6	14.7	16.6	17.7	22.7	10.4	20.6	16.6
10~15년미만	10.8	1.7	19.7	3.8	14.1	7.7	11.5	3.1	17.5	14.2
15~20년미만	2.5	1.3	14.1	1.3	8.1	3.1	7.8	0.8	10.6	13.1
20~25년미만	1.9		8.9	0.6	4.3	5.4	3.7	1.3	5.6	8.5
25~30년미만	0.8	0.4	5.2	1.3	2.1	0.8	2.2	0.3	6.1	4.9
30년이상	0.2	0.8	2.8		1.6		1.5		3.3	4.2

여성 [업종의 %]

업종 종사년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 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숙박및음 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5년미만	77.6	95.7	67.0	83.8	79.3	87.2	77.6	86.5	57.4	64.0
5~10년미만	13.8	3.2	21.8	7.8	13.1	10.6	17.2	9.1	27.7	21.3
10~15년미만	4.8		8.5	5.0	5.2	2.1	5.2	2.4	6.4	6.9
15~20년미만	2.8	1.1	1.6	2.2	1.5			1.5	8.5	4.8
20~25년미만	1.0		0.8	0.6	0.5			0.3		2.1
25~30년미만			0.6	0.3				0.2		0.5
30년이상		0.3		0.1						0.3

편차 [남성기업-여성기업] [업종의 %]

종사년	업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5년미만		-8.2	-6.8	-39.2	-5.6	-26.1	-21.8	-27.0	-2.3	-21.2	-25.5
5~10년미만		0.6	3.6	-0.2	6.9	3.4	7.1	5.4	1.2	-7.0	-4.7
10~15년미만		6.0	1.7	11.2	-1.2	8.9	5.6	6.4	0.7	11.2	7.3
15~20년미만		-0.3	0.2	12.5	-1.0	6.6	3.1	7.8	-0.7	2.1	8.3
20~25년미만		0.8	0.0	8.1	0.1	3.8	5.4	3.7	1.0	5.6	6.3
25~30년미만		0.8	0.4	5.2	0.7	1.8	0.8	2.2	0.1	6.1	4.4
30년이상		0.2	0.8	2.5	0.0	1.5	0.0	1.5	0.0	3.3	4.0

단된다.

동업계 종사년과 업종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남녀기업인의 경력 구성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모든 업종에서 여성기업인이 경력 5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95.7%), 부동산임대업(87.2%), 숙박 및 음식점업(86.5%), 교육서비스업(83.8%)에서는 경력 5년 미만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는 5년 미만 경력 구성비의 남녀기업간 차이가 매우 크다. 여성기업인의 창업이 전문성의 발휘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인의 창업과 전문성 발휘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나이와 업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별로 나이별 업종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세 미만에서 남성기업인의 구성비가 높다. 그러나 그 밖의 서비스업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 특히 30-39세 연령대에서 여성기업인의 구성비가 높다. 이들이 경력이 단절된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할 때 또는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40세 이상에서 여성기업의 점유율이 높다. 이들 업종은 경력단절 이후 새로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전문성은 없지만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김영옥(1998), 정희선(2002a), 전방지(2001)(2002), 안승철 등(2005) 그리고 Anna et al.(2000)이 지적하듯이 소비자로서 일상제품에 대한 미비점과 소비자의 욕구파악이 빠른 업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50세 미만에서 여성의 구성비가 높다. 이는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산업분야에 진입할 때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젊은 나이에 창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여성기업은 비교적 전문성이 낮은 그리고 소규모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여성기업은 제조업에 진입할 때에도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¹³⁾ 연령이 경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기업인의 창업은 전문성의 발휘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8. 남성여성기업의 나이구간별 업종의 퍼센트 차이표

남성 [업종의 %]

나이 \ 업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29세	1.0	4.9	0.5	2.1	0.7	1.2	0.4	3.1	0.3	0.4
30~39세	26.2	44.9	19.9	42.0	23.9	13.7	25.1	33.6	18.3	13.8
40~49세	44.9	32.6	46.6	43.2	46.6	35.5	45.2	39.0	41.6	45.3
50~59세	23.0	10.5	25.2	10.3	21.2	30.9	18.7	17.5	25.9	28.4
60세이상	5.0	7.1	7.8	2.5	7.5	18.8	10.7	6.9	13.8	12.0

여성 [업종의 %]

나이 \ 업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29세	2.9	3.1	1.1	8.1	1.9	1.1	2.8	2.3	0.8	1.0
30~39세	37.3	31.3	25.4	53.7	29.6	30.1	44.3	20.8	28.6	16.7
40~49세	42.8	38.0	46.6	27.2	43.1	31.2	32.1	46.8	46.2	49.2
50~59세	13.6	20.2	20.8	10.6	19.0	18.3	17.9	24.2	17.6	22.9
60세이상	3.4	7.4	6.1	0.4	6.5	19.4	2.8	5.8	6.7	10.2

편차 [남성기업-여성기업] [업종의 %]

나이 \ 업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29세	-2.0	1.8	-0.6	-6.1	-1.1	0.1	-2.5	0.7	-0.5	-0.6
30~39세	-11.2	13.6	-5.5	-11.7	-5.6	-16.4	-19.3	12.8	-10.3	-2.9
40~49세	2.1	-5.4	-0.1	16.0	3.5	4.4	13.2	-7.8	-4.6	-3.9
50~59세	9.4	-9.7	4.4	-0.3	2.2	12.6	0.7	-6.7	8.3	5.5
60세이상	1.6	-0.3	1.7	2.1	1.0	-0.6	7.8	1.0	7.1	1.8

2)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에는 여성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별 업종별 종업원 규모 비율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해 보았는데,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모든 업종에서 여성기업은 0-4인 규모 비율에서 우위를 보인다. 여성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서비스업은 특성상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에 진

출해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종업원 4인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모두 90%를 상회할 정도로 여성기업의 영세성이 두드러진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영세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4인 이하 기업이 동 업계 전체 기업의 96%를 상회하고 있다. 건설업과 운수업에서는 5-9인 규모에서도 여성기업이 상

대적인 우위를 보인다. 서비스업과는 달리 이들 업종에서는 종업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을 여성형 산업과 남성형 산업으로 구분해서 차이분석을 해보아도 여성형 산업에서 여성기업의 소규모성이 크게 부각된다. 여성형 산업에서 여성기

업은 종업원 0~4인 규모가 전체의 93.2%를 점유하고 있지만, 남성기업의 구성비는 83.6%에 머물고 있다. 남성형 산업에서 여성기업은 종업원 0~4인 규모가 전체의 63.2%로 여성형 산업에서의 그것보다 낮다. 남성기업의 구성비도 53.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소규모성은 어떤 방식으로 업종을

표 9. 남성여성기업의 종업원구간별 업종의 퍼센트 차이표

남성 [업종의 %]

업종 종업원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 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숙박및음 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0~4인	76.0	92.6	55.8	87.1	83.0	76.3	55.3	94.4	73.8	46.3
5~9인	9.8	1.5	20.8	6.2	12.4	16.3	18.3	2.4	8.0	20.9
10~19인	8.7	0.7	15.1	2.1	3.4	5.3	9.8	1.3	5.4	16.4
20~49인	3.8	1.7	6.8	2.9	0.9	1.6	7.1	1.6	6.1	10.7
50~99인	1.0	2.5	1.2	0.4	0.2	0.4	4.3		3.4	3.4
100인이상	0.7	1.0	0.5	1.2	0.1		5.2	0.3	3.3	2.3

여성 [업종의 %]

업종 종업원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 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숙박및음 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0~4인	90.8	96.3	59.3	96.7	91.7	89.2	72.0	96.9	82.3	58.9
5~9인	4.4	0.6	23.9	1.7	6.9	7.2	4.0	2.6	10.6	20.0
10~19인	3.0	0.6	11.5	0.8	0.9	2.4	4.0	0.2	3.5	12.8
20~49인	1.6	1.3	4.8	0.8	0.4	1.2	10.0	0.1	0.9	6.6
50~99인	0.2	1.3	0.5		0.1		7.0	0.2	2.7	1.5
100인이상					0.0		3.0			0.2

편차 [남성기업-여성기업] [업종의 %]

업종 종업원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오락,문화 및운동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및소 매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숙박및음 식점업	운수업	제조업
0~4인	-14.8	-3.7	-3.6	-9.6	-8.7	-12.8	-16.7	-2.5	-8.5	-12.7
5~9인	5.4	0.9	-3.2	4.6	5.5	9.1	14.3	-0.3	-2.6	0.9
10~19인	5.7	0.1	3.6	1.2	2.5	2.9	5.8	1.1	1.8	3.7
20~49인	2.2	0.5	2.0	2.1	0.5	0.4	-2.9	1.5	5.2	4.1
50~99인	0.8	1.2	0.7	0.4	0.2	0.4	-2.7	-0.2	0.8	1.9
100인이상	0.7	1.0	0.5	1.2	0.0	0.0	2.2	0.3	3.3	2.1

구분해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기업의 소규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기업인의 젊은 나이, 부족한 창업자본, 짧은 경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나이와 규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나이별 규모비율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차이분석을 통해 검증해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만, 남녀기업인 모두 40세미만의 경우 종업원 4인 이하의 규모가 높은 비율을 점하는 등 나이가 젊을수록 규모가 작고 나이가 들수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연령별 기업규모를 남녀기업인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30~39세 구간에서는 모든 종업원규모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40~49세 구간에서는 0~4인과 50~99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의 소규모성이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창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에는 창업자본 대신 동업계 종사년이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창업자본이 기업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이지만 표본기업의 창업자본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창업자본 대신 동업계 종사년을 대리변수로 이용하기로 한다. 짧은 업력은 창업을 위한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자본에 대한 대

표 10. 남성여성기업의 종업원구간별 나이구간의 퍼센트 차이표

남성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29세	1.0	0.5	0.3	0.1		
30~39세	26.5	13.7	10.5	5.9	5.1	3.1
40~49세	46.2	46.9	42.3	38.4	32.2	20.7
50~59세	19.8	29.0	33.3	37.1	32.8	39.6
60세이상	6.6	10.0	13.6	18.4	29.9	36.6

여성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29세	2.4	1.1				
30~39세	30.4	17.1	15.9	8.9	12.9	14.3
40~49세	43.0	50.5	43.3	42.9	25.8	28.6
50~59세	18.5	24.9	30.8	32.1	41.9	28.6
60세이상	5.6	6.4	10.1	16.1	19.4	28.6

편차 [남성기업-여성기업]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29세	-1.4	-0.6	0.3	0.1	0.0	0.0
30~39세	-3.9	-3.4	-5.3	-3.0	-7.8	-11.2
40~49세	3.2	-3.7	-1.0	-4.4	6.4	-7.9
50~59세	1.2	4.0	2.5	5.0	-9.1	11.1
60세이상	0.9	3.7	3.5	2.3	10.5	8.0

리변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짧은 업력은 그 자체로도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녀기업인의 동업계 종사년별 종업원 규모의 차이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남녀기업 모두 기업인 경력 5년 미만에서 소규모성이 특히 두드러졌다. 그러나 남성기업의 경우 기업인 경력 5년 미만에서 종업

원 규모 4인 이하 기업이 접하는 비중은 66.4%로 여성기업의 그것(83.2%)에 비해 16.8% 포인트나 낮다. 그리고 기업인의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업이 접하는 비중은 기업규모가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인의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업이 접하는 비중도 기업규모가 커지면

표 11. 남성여성기업의 종업원구간별 종사년구간의 퍼센트 차이표

남성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5년미만	66.4	26.5	21.0	15.8	23.2	22.6
5~10년미만	15.0	23.0	21.4	19.2	13.4	15.1
10~15년미만	9.5	21.5	19.8	20.7	14.2	16.7
15~20년미만	4.8	14.5	16.4	17.1	16.5	10.8
20~25년미만	2.4	8.0	11.1	13.0	13.0	13.4
25~30년미만	1.4	3.8	6.0	7.7	11.0	9.1
30년이상	0.6	2.6	4.3	6.4	8.7	12.4

여성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5년미만	83.2	60.5	48.3	46.4	32.0	33.3
5~10년미만	10.8	23.4	35.1	33.3	40.0	33.3
10~15년미만	3.8	10.8	7.3	9.5	16.0	33.3
15~20년미만	1.5	3.9	7.3	6.0		
20~25년미만	0.4	1.2	1.3	3.6	8.0	
25~30년미만	0.2	0.3	0.7		4.0	
30년이상	0.1		1.2			

편차 [남성기업-여성기업] [종업원구간의 %]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이상
5년미만	-16.9	-34.0	-27.4	-30.6	-8.8	-10.8
5~10년미만	4.2	-0.3	-13.7	-14.1	-26.6	-18.3
10~15년미만	5.7	10.8	12.5	11.2	-1.8	-16.7
15~20년미만	3.3	10.6	9.2	11.1	16.5	10.8
20~25년미만	1.9	6.8	9.7	9.4	5.0	13.4
25~30년미만	1.2	3.5	5.4	7.7	7.0	9.1
30년이상	0.5	2.6	4.3	5.2	8.7	12.4

서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종업원 규모 49인 이하까지 기업인 경력 5년 미만인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남성기업의 경우 경력구간이 증가할수록 비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종업원 구간도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경력 5년 미만의 경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종업원 구간은 4인 이하와 5-9인 구간이며, 점유율은 후자의 경우 26.5%로 전자(66.4%)보다 39.9% 포인트나 낮다. 그러나 경력구간 10-15년과 15-20년에서는 종업원 20-49인 구간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경력구간 20년 이상에서는 종업원 100인 이상이 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여성기업의 경우 경력구간과 종업원 규모구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경력이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기업보다 남성기업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은 여성보다 빈번하게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다는 연구결과(Brush, 1992)와도 부합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경력이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변수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창업을 위한 적은 자본과 짧은 경력이 여성기업의 특성, 특히 소규모성과 업종의 편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본축적과 경력 쌓기에 여성기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력단절,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기업이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기업인의 창업이 전문성의 발휘보다는 생계를 위한 창업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의 잠재력을 높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여성기업인들에게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김영옥·임희정(2006)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한국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74.4%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률 32.5%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인데, 여성기업의 여성고용 창출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2007: 17; 강혜련, 2003)

여성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산업은 대체로 경쟁이 심하며, 성장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렇수록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에 있어 잠재적 여성기업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이용률도 낮다(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양자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이 여성기업의 업종, 성장성, 규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성기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민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지되고 있는 만큼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이 여성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여성기업인의 장애요인이 여성기업의 특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 글이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

- 1) 여성기업에 대한 초기의 연구경향, 연구방법 등에 대한 검토로는 Brush(1992) 참조.
- 2)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로는 김경조·최진배(2007) 참조.

- 3) 여성의 직장 내에서의 차별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장덕진 · 황정미(2003), 김금수(2004) 참조.
- 4) 이 문제에 대한 개관으로는 김영옥 · 임희정(2006) 참조.
- 5) 이에 대해서는 Maltby(1996), 이충희(2001), 차은영(2006), 김영옥 · 임희정(2006), 김경조 등(2008) 참조.
- 6) 1980년 전후로 여성기업의 진출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정희선(2002b)과 Anna et al.(2000)을, 스웨덴의 경우는 Rietz & Henrekson(2000)을 참조. 한편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2007)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여성기업의 실태를 폭넓게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에서 보듯이 여성기업 진출영역의 다양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
- 7) 비교적 금융기관 신용예의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이와는 달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8) Anna et al.(2000)은 소매 및 서비스산업을 여성형 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및 신기술(high technology) 산업을 남성형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기업의 분야를 채취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등), 변환산업(건축, 교통, 도매업 등), 기업서비스(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 금융 등), 소비자산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의 네 가지로 나눈 후 여성기업은 대부분 소비자산업 분야라고 말한다(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2007; 23). 이 글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여성형 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을 남성형 산업으로 분류한다.
- 9) 본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남성업종/여성업종별 남녀사업체분할표 검정결과 χ^2 값은 1236.896,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남성업종/여성업종 비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 10) 기준기업을 인수하거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에 따르면 2006년도의 경우 직접창업이 80.1%를, 가업승계와 기준기업인수가 각각 3.3%, 16.5%를 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p.16 참조.
- 11) 나이구간별 남녀사업체 분할표 검증결과를 보면 χ^2 값

은 248,141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나이구간의 비율간 차이가 유의하다.

- 12) 다만 이 글의 표본은 창업당시의 연령이 아니라 현재의 연령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1)(2003)(2005)(2007) 참조.
- 13) 김경조 · 최진배(2007)에 따르면 제조업의 중화학공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중화학공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8.5%이지만 경공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25.9%이다.

참고문헌

강혜련, 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경영논총 21, pp. 1-19.

김경조 · 김태훈 · 최진배, 2008, “우리나라 여성중소기업의 주거태은행과계와 그 함의,” 공간과 사회 29, pp. 68-93.

김경조 · 최진배, 2007,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이론적 검토,” 상경연구 23(1), pp. 21-43.

김금수, 2004, “기업의 여성관리자 현황과 여성관리자에 대한 정책과제,” 대한경영학회지 45, pp. 1465-1484.

김영옥, 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 · 임희정, 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1, pp. 107-140.

나중덕 · 김승호 · 최락열, 2004, “여성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6(1), pp. 175-201.

성삼경 · 최종후 · 이재창, 1993, “경영학 연구논문의 통계적 오류,” 경영학연구 22(2), pp. 163-198.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2007, 해외여성기업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승철 · 박소영 · 김명화, 2005,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 · 경북지역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산경연구 13, pp. 95-129.

이충희, 2001, “여성기업의 금융거래실태와 금융과제,” 기

- 은조사 겨울호, pp. 43-71.
- 장덕진 · 황정미, 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 *경제와 사회* 59, 130-160.
- 전방지, 2001, “여성과 기업”, *경제와 사회* 51, pp. 240-261.
- 전방지, 2002, “여성 중소기업인의 창업과 경영방식-우리나라와 미국의 경험”,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4(2), pp. 61-87.
- 정희선, 1998, “한국의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0(2), pp. 295-320.
- 정희선, 2002a, “여성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7, pp. 179-196.
-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1,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조사 보고 2001.
-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5, 2005 여성기업실태조사.
- 중소기업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
- 차은영, 2006,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여성경제연구* 3(2), pp. 9-40.
- Anna, A. L., Chandler, G. N., Jansen, E. and Mero, N. P., 2000, “Women business own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pp. 279-303.
- Bates, T., 2002, “Restricted access to markets characterizes women-owned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 pp. 313-324.
- Boden, Jr, R. J. and Nucci, A. R., 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pp. 347-362.
- Brush, C. G., 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pp. 5-30.
- Buttner, E. H. and Moore, D. P., 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pp. 34-46.
- Carter, S. and Peter, R., 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0, pp. 225-241.
- Carter, N. M., Williams, M. and Reynolds, P. D., 1997, “Discontinuance among new firms in retail: the influence of initial resources, strateg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pp. 125-145.
- Cliff, J. E., 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rowth,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pp. 523-542.
- Coleman, S., 2000, “Access to capital and terms of credit: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pp. 37-52.
- Heilman, M. E. and Chen, J. J., 2003, “Entrepreneurship as a solution: the allure of self-employment for women and minorit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pp. 347-364.
- Maltby, S., 1996, “Banks and the woman business owner: dissolving the paradox,” *Vital Speeches of the Day* 62(6), pp. 186-188.
- Marlow, S. and Patton, D., 2005, “All credit to men? entrepreneurship, finance, and gende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6), pp. 717-735.
- Rietz, A. D. and Henrekson, M., 2000, “Testing the underperformance hypothesis,” *Small Business Economics* 14, pp. 1-10.
- 교신: 최진배, 경성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413-79, tel: 051-620-4412, email: jbchoi@ks.ac.kr
- Correspondence: JinBae, Choi, 413-79 Daeyun-3dong Nam-gu, Busan 608-726, tel: 051-620-4412, email: jbchoi@ks.ac.kr

A Study on the Trouble Factors of Female-Owned Businesses in Kwangju-Cheonnam Region

KyoungJo Kim* · JinBae Choi** · Taehun Kim***

Abstract : It is said that there exist trouble factors of female-owned businesses and they disturb the growth of female-owned businesses. This paper, focusing on the balancing of work and family roles and discontinuance of career, examines whether trouble factors of female-owned businesses can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owned businesses in Kwangju-Cheonnam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these disturbing factors effect the accumulation of capitals for start-ups of female-owned businesses and careers of female business owners, so that female-owned businesses enter disproportionately on service industry and their sizes are small. These support existing study results.

Keywords : trouble factors of female-owned businesses, discontinuance of career, balancing of work and family roles, firm size, disproportionate entrances on some industries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Digital Business, Kyungsu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Digital Business, Kyungsung University.